

01 교회소식

하나님의 깊은 사랑, 재창조의 역사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기도로 태중 아이의 성별이 바뀐 신기하고 놀라운 사례들을 소개한다.

02 생명의 말씀

빛 가운데 행할 때의 축복

말씀대로 살며 어둠을 벗어 버리는 만큼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으며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

03 신앙상담

과연 '믿음'이란 무엇인가?

보배 중의 보배인 믿음, 2014년 응답과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 믿음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04 간증

"하나님 사랑, 체험하며 살아요!"

영육 간에 축복이 넘친다는 캐나다 이형규 장로와 성령의 불을 받고 일어나 걷게 된 필리핀 미르나 델로 성도 간증.

만민뉴스

제618호 2014년 1월 26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 권능의 역사

“복중(腹中)의 아들이 딸로, 딸이 아들로 됐으면 좋겠다고요?”

새해 벽두부터 우리 교회에는 하나님의 역사로 태중 아이의 성별이 바뀌었다는 간증이 속속 접수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22일 발간된 만민뉴스 613호에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기도를 받고 결혼 9년 만에 아내가 첫 아이를 출산했을 뿐 아니라 딸이라던 태중 아이가 아들로 바뀐 간증(곽희용 집사)이 게재됐다. 이를 계기로 1982년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이 같은 역사를 체험한 성도들의 간증이 봇물 터지듯 계속 이어져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고 있다.

부산만민교회 정성숙 집사(49세)가 22년 전, 둘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의 일이다. 둘째는 반드시 아들이었으면 좋겠다는 남편의 바람을 잘 알았기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설교 후 진행되는 환자기도를 받았고, 아들을 낳기 위해 늘 기도했다.

임신 후 초기 진단을 받았을 때에 딸이라고 했고, 7개월째도 역시 100% 딸이라 했다. 그러나 정 집사는 그동안 성도들과 함께 믿음으로 기도해 왔기에 평안했고, 믿음대로 딸이 아닌 아들을 출산했다. 그녀는 “그 당시 저의 절박한 상황을 아시고 당회장님의 기도로 딸을 아들로 바꿔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말했다.

태아의 성별은 난자와 정자가 만나 수정



윗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조은영 전도사의 아들 권도현 형제(맨 왼쪽), 딸이 아들로 된 이미란 집사의 둘째 아이 윤하진 유아, 엄마 김선호 권사의 간절한 기도로 태어난 딸 문진주 자매(맨 오른쪽), 안혜영 집사 딸 정희수 자매, 최윤영 집사의 믿음대로 응답받은 딸 주가영 자매(왼쪽에서 두 번째), 정성숙 집사 아들 박정현 형제.



될 때 결정된다. 태아의 생식기가 초음파로 감지되는 임신 13주에서 14주경에는 성별을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임신 7~9개월이 되면 여아는 여자, 남아는 남자로 성장한다. 그런데 우리 교회 조은영 전도사(49세)는 1995년 임신 7개월 당시, 둘째도 딸이라

남자는 XY성염색체를, 여자는 XX성염색체를 가지고 있다. 남자의 X염색체와 여자의 X염색체가 만나 수정되면 여아가 되고, 남자의 Y염색체와 여자의 X염색체가 만나 수정되면 남아가 된다.

권능의 기도를 통해 태중의 남아가 여아가 되는 것은 XY가 XX로, 여아가 남아가 되는 것은 XX가 XY로 재창조되는 역사이다.

자료출처: 보건복지부, 대한의학회

는 사실을 알고 “아들을 낳아 시부모님을 전도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기도를 받았다. 출산 전날까지 초음파 검사를 통해 태아가 딸임을 확인했으나 아들을 주시리라는 믿음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조 전도사는 “분만실에서 의사가 ‘또 딸이네요.’ 하다가 ‘어? 고추 있네! 진짜 고추가 있어~’ 하며 무척 놀라는 거예요. 이 일로 가족의 믿음이 더해지고 아들을 원하던 시부모님까지 전도됐습니다.”라고 말했다. 또, 작년 초 이미란 집

사(38세)도 예배 시 이 목사의 환자기도를 받고 딸이 아들로 바뀌는 역사를 체험했다.

일본 야마가타만민교회 최윤영 집사(49세)는 심장 수술 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엘리사의 기도로 잉태한 수넵 여인처럼 이재록 목사의 기도로 잉태의 축복을 받아 아들 둘을 낳았다. 그 뒤 셋째 아이까지 임신한 최 집사는 딸을 간절히 원했으나 5개월째 되어 아들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그녀는 “당회장님, 병원에서는 아들이라고 했지만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딸로 바꿔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이 목사에게 기도를 받았고, 그녀의 믿음대로 딸을 낳을 수 있었다.

이처럼 남아가 여아로 바뀐 경우도 꽤 있다. 19년 전, 첫 아들을 낳고 태중의 둘째는 딸이기를 소원하던 김선호 권사(46세)는 기대와는 다른 말을 들었다. “임신 5개월째 병원에서 ‘달려 있네요.’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9개월째 병원에 갔는데 아직도 아들이래요.” 그러나 김 권사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니 딸로 바꿔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

에 힘썼다. 딸 이름을 지어 놓고 예배 때마다 이재록 목사의 환자기도를 받았다. 산통이 와서 병원에 갔는데 예쁜 딸을 낳았다.

안혜영 집사(47세)도 딸을 원했으나 아들을 임신한 사실을 알았다. 안 집사는 “임신 7~8개월이 됐을 때 딸 낳기를 위해 당회장님께 기도받았는데, 정말 딸을 낳아서 매우 기뻐했습니다.”라고 간증했다.

시편 127편 3절에 “자식은 여호와와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말씀하신 대로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선물이다. 그런데 이를 통해서도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 권능을 체험하게 되니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미 창조된 아들이나 딸을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하게 딸이나 아들로 바꿀 수 있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요한복음 4장 48절에 기록된 대로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친히 만나고 체험케 함으로 많은 영혼에게 믿음을 심어 주고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깊고도 크신 사랑이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제가 빛 가운데 계신 것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귀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7)

빛 가운데 행할 때의 축복

‘빛’은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 자체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빛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것 죄, 악, 불의, 불법 등이 어둠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성경에는 하라, 하지 말라, 버리라, 지키라,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말라 하신 말씀들이 있지요. 또 미움, 음욕, 시기, 질투, 교만, 감정, 혈기, 간사함, 탐심 등 버려야 할 것들도 알려 주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기도하라”, “화평하라” 이렇게 무엇 무엇을 하라 하신 말씀도 있고, “안식일을 지키라” 하신 말씀처럼 지켜야 하는 것도 있지요. 이런 말씀을 거역하면 어둠에 거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해 행하면 빛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에 비추어 보면 자신이 빛에 거하는지 어둠에 거하는지 쉽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만일 상대의 말이나 행동에 감정이 상했거나 남의 허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했다면 빛입니까? 어둠입니까? 혹은 나름대로 노력했는데 공로를 인정받지 못해 충성할 의욕을 잃어 버렸다면 빛입니까? 어둠입니까?

그러면 빛인지 어둠인지 알기만 하면 빛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지요. 알면서도 진리대로 행하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어둠에 거하는 것입니다. 진리대로 행해야만 빛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2.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어 있으려면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며, 그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반면에 어둠은 원수 마귀 사단이 지배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이 빛 가운데 나오지 않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둠에 속해 원수 마귀 사단의 지배를 받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해도 실제로는 하나님과 사귀어 없고,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

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했습니다. 이어지는 7절에는 “제가 빛 가운데 계신 것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귀어 있고” 했습니다. 주님을 영접했으면 그 후에는 반드시 죄악에서 떠나야 합니다. 어둠에서 떠나 빛으로 나올 때야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어 있지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사귀어 있으십니까? 각자 진리 가운데 거하는 만큼 그 대답이 담대하게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사귀어도 정도가 다릅니다. 어느 한쪽에서만 상대를 안다면 이는 사귀어라고 할 수 없지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대통령에 대해 잘 알아도 그것만으로 대통령과 사귀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양쪽이 서로 알아야 사귀어라 할 수 있지요. 또 서로 간에 얼굴만 아는 정도의 사귀어도 있고 종종 안부를 묻는 사귀어도 있습니다. 서로를 신뢰하며 무엇이든 나눌 수 있는 깊은 사귀어도 있지요.

이처럼 사람 편에서 하나님을 믿는다 할 뿐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도 그 믿음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저는 내 말씀에 순종하며 내게 속한 자녀라.” 이렇게 인정받은 사람이라야 하나님과 참된 사귀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참된 사귀어 있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그 증거가 따릅니다. 질병도, 재앙도, 사고도 떠나가고 범사에 지킴 받습니다. 건강이나 명예, 물질 등 필요한 것을 믿음으로 구할 때마다 응답받을 수 있지요.

요한삼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 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신 말씀이나 마가복음 9장 23절에 “...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신 말씀들을 그대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약속하신 대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며 꾸어 줄 지라도 꾸지 않고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는 복’도 임하게 되지요.

물론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처럼 주를 위해 핍박을 감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도 기사와 표적은 항상 따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때 질병이 떠나고, 악귀가 물러가며, 어둠이 물러갔지요. 이렇게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 사귀어 있다

는 증거가 항상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3. 빛 가운데 행할 때의 축복

캄캄한 방 안에 불을 켜면 환해집니다. 불을 켜기 전에는 어둠이 가득하지만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리대로 살아서 빛이 되면 어둠이 우리 삶에서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재앙이나 시험 환난, 가난이나 질병도, 어둠의 주관자인 원수 마귀 사단이 줍니다. 빛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런 것이 근접할 수 없지요.

물론 빛이라 해도 밝기는 다릅니다. 강한 태양빛이 있는가 하면 달빛도 있고 별들도 각각 그 빛이 다른 것을 봅니다. 빛이 강할수록 어둠은 더 쉽게 물러갑니다. 영적으로도 빛이 얼마나 강한가에 따라 어둠을 물리치는 권세와 능력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직분이 높아도 죄악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 자체가 어둠이기에 어둠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친다 해도 원수 마귀 사단이 꿈쩍도 하지 않지요.

반면에 진리를 몰라서 시험 환난 가운데 살던 사람도 주님을 영접해 빛 가운데 나오면 달라집니다. 말씀대로 살아서 어둠을 벗어버리는 만큼 재앙들이 떠나고 복이 임합니다. 나아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면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지요(요일 5:18).

요한일서 3장 21~22절에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범되지 아니하고 온전히 진리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는 어둠이 근접할 수 없지요. 영적인 빛의 권세 앞에 원수 마귀 사단이 두려워 땀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으니 구하는 것마다 응답을 적절히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빛과 어둠을 분별해 온전히 빛 가운데 행함으로 온 세상을 밝히며 참 빛 되신 주님의 품으로 많은 영혼을 인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http://news.manmin.org>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교회버스 (교회 차량/ ☎ 02) 818-7391~5)
주일·금요일: 각 지역별로 운행(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일원)

지하철
2호선 구로 디지털단지역(번 출구)/ 환승 5536
7호선 남구로역(2번 출구) 도보 10분

사내버스
디지털단지 오거리 정류장/503,504,571,652,5618,5619, 5626,5630,5712,5714
5625,5627,5633,5713,6512,6635,금천06/환승 5536
연희동고등학교 정류장 (남부순환도로)/ 651,5528
504,643,5626
구로디지털단지역 정류장 (시흥대로)/5,51,150,505,507, 5531,5534,5601,5616,5617,5620,5621,5623,5624, 5625,5627,5633,5713,6512,6635,금천06/환승 5536
만민중앙교회 앞 정류장/ 5536, 5615(편도), 5616(반대편 편도)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요식업선교회 예배	11:00 PM
금요일예배	11:00 PM
수요일예배	7:00 PM
화요일예배 [청년·가나인]	8:00 PM
빛과소금 수요찬양예배	9:00 PM
토요일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일예배 [아동부]	3:00 PM
다시 열릴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간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간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2074

우리은행 1002-048-310140 (예금주 김연선)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 Q&A }

Q 저는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보배 중의 보배는 믿음이라고 하는데, 과연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A 요즘에는 '선데이 크리스천'이 참 많다고 합니다. 옛세 동안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에만 교회에 나와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이지요. 그런가 하면, 철새 교인이 되어 이 교회 저 교회를 떠돌아 다니며 설교를 듣기만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처럼 주일이 되면 교회에 나오지만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질병과 물질의 문제, 가정의 문제를 안고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과연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무엇인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야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한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과 우리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창조의 증거를 만물에 담아두심으로 스스로를 사람들에게 나타내셨지요(롬 1:20). 우리가 마음을 열고 자연을 바라보면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 또한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증거합니다. 아제나 오 늘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나타내시는 권능을 보아도 살아 계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이라면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써 죄인 된 인류를 대신해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여시고

부활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에서 믿을 때 통회자복하고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구세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살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받으며, 주님의 마음을 닮은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고자 힘쓰게 됩니다. 그 결과, 영혼의 구원을 받아(벧전 1:9)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를 얻고 진리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

많은 사람이 교회에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지만 처음부터 참 믿음을 소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죄를 회개하고 예

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를 얻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며, 예수가 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지, 또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고 믿게 되는데 이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이후에는 삶 속에서 성경에 기록된 '하라', '하지 말라', '지키라', '버리라'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므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지 않거나 십일조를 드리지 않으며, 여전히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룬다면 참 믿음을 가졌다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죄악을 발견해 간절히 기도함으로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살전 5:22). 성경에 기록된 진리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이 보배 중의 보배인 참 믿음을 소유하는 지름길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오늘날 과학과 의학이 아무리 발달했다 해도 사람의 능력이나 한계를 넘어선 인생의 문제나 각종 현대 질병, 엄청난 재앙이 끊임없이 온 인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를 하나님

의 능력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성경은 믿음에 대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히 11:1~2) 말씀합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일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것이 실상으로 나타나고,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 실제로 그 증거가 나타난다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할까

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현실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이라 해도 능히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 믿음을 소유하면 현실을 보며 결코 좌절하거나 낙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궁구하게 되고, 응답과 축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헤아려 감사하게 됩니다. 그 결과, 믿음의 고백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 중심에서 신뢰하는 척도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

이 "주여,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자기 편의대로 일방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인정하고 신뢰하실지 생각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참 믿음이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척도입니다.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해도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신뢰이며, '여기까지는 되는데 이 이상은 안 돼.'라며 한계를 짓지 말아야 온전한 순종의 행함이 따를 수 있습니다. 하나

님을 마음 중심에서 사랑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순종하는 무수한 행함이 쌓여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됩니다. 따라서 믿음은 신앙생활의 기초요, 구원의 지름길이며 응답과 축복의 필수 요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해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영원한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p>GCN방송 시청자 여러분~ 행복한 설 명절 보내세요! 2014.1.26~2.1 January 謹賀新年</p>	<p>이재록 목사의 '생명의 말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령의 음성주관인도 5-9 믿음을 축량하시니 21-22 성령의 9가지 열매 1-3 죄의 뿌리와 성결 2 믿음의 분량 1-4 창세기 강해 41-45 우리 삶의 등불 7 	<p>GCN TV 설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축복권과 저주권 2(이수진 목사) 주도면밀한 삶(이미영 목사) 영의 세계 8(이희선 목사) 결단 2(신동초 목사) MIS강의 1(정구영 목사) 모든 것에 사랑으로(김수정 목사) 기대 그리고 보답(교경아 교육전도사) 	<p>예능 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알콩달콩 어여쁜 울동 12-13 찬양드려요 12-13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12-13 항기 12-13 • English 6-7 플로리스트 12-13 아름다운 예배 7 GCN 금요찬양 스페셜 11-17 	<p>설 특집 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GCN특선영화(성의/말아톤/사도바울) 2014 기도제목 설교 [내가 시행하리라/사역빛나는 성전/재창조의 역사] 2013 성탄전야공연 [주님의 사랑] <p>위성, 인터넷, 인터넷TV방송 A/S 문의 1577-2073</p>
--	--	--	---	---

저의 외갓집은 증조부님 대부터 주님을 믿으셨고, 외조부님은 주기철 목사님의 주례로 혼례를 올리셨습니다. 어머니는 선대의 신앙을 전해 주시면서 제게 늘 믿음 안에서 살도록 권면하셨지요. 하지만 저는 세상 부귀영화와 쾌락을 추구하며, 소위 선데이 크리스천에 불과했습니다.

1997년 결혼 당시, 삼성전자 반도체부문에 근무했는데 IMF 금융위기를 맞아 회사는 최대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와 감원의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회사와 생존을 위해 새벽에 출근해 밤늦게 퇴근하는 날들이 이어졌지요. 더군다나 경건의 모양도 없는 신앙생활을 했기에 세상의 성공과 쾌락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고 있었습니다.

이후 회사는 안정을 찾았고, 저도 인정을 받아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 영혼은 무언가 깊은 곤고함을 계속 느꼈습니다.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고, 나중에 뒤돌아보면 너무나 허망할 것 같다는 생각에 무언가 가치 있는 것을 찾고자 했지만 찾을 수 없었지요.

결국 저는 이런 삶을 벗어나고 싶어 캐나다 이민을 결정했습니다. 2002년 5월, 캐나다 캘거리로 이민 온 저는 교회의 각종 예배에 참석하고 새벽 기도, 교회 봉사 활동을 하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텔 운영사업에 관심이 있어 프런트 데스크 분야에서 오랫동안 근무했지요.

2004년 어느 날, 같은 교회에 출석하던 당시 김춘호 집사님이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저서 『지옥』과 『천국』 책을 건네주었습니다. 만민중앙교회 홈페이지도 알려줘 당회장의 주옥같은 생명의 말씀을 들으며 명쾌하고 심오한 말씀에 큰 감명과 은혜를 받았지요. 지금까지 해 온 신앙생활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깨달으며 제 삶에 큰 전



“매년 사업터 매출 성장으로 축복이 넘칩니다”

이형규 장로 (캐나다 캘거리만민교회)

한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회장님을 만나 뵙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마침 2006년 7월, 김춘호 집사님 가족과 함께 한국 만민중앙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여간 머물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신앙의 도전을 받았지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수련회 때 당회장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통해 허리 근육 통증을 치료받는 체험도 했지요. 무엇보다 ‘참된 목자는 양 떼를 위해 목숨을 버린다는 말씀대로 성도들을 위

해 헌신하시는 당회장님의 모습은 감동이었습니다. 한국 방문 기간 중, 김춘호 집사님이 캐나다 선교사로 파송돼 이후 캘거리만민교회를 개척하게 됐습니다. 또한 7월 말 ‘뉴욕 연합대성회를 앞두고 출국하시는 당회장님께 ‘교회 재정에 이바지하는 사업터 개업’이라는 제목으로 축복기도를 받았지요.

귀국 후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2009년, 캘거리 벨트라인(BELTLINE)에 위치한 그레이트 클립스(GREAT CLIPS) 미용실 가맹점을 형통하게 인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개업 과정에서 난관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저를 발견하며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니 될 것도 되게 하시므로 당회장님의 기도를 보장해 주셨지요

‘그레이트 클립스’는 미국과 캐나다에 3천여 가맹점을 두고 있는 북미 최대 프랜차이즈 미용업체입니다. 아내 김란아 집사가 캐나다 현지인 직원 관리 및 미용을 담당하고, 저는 경영 전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현지인들도 인수가 쉽지 않은 유명 브랜드 프랜차이즈 미용실을 개업한 후, 저는 수입의 십일조가 아니라 매출의 십일조를 드렸습니다. 지금도 초심을 잃지 않고 변함없이 매출의 십일조를 드리고 있으며, 당회장님께도 예물을 심으며 사업터에 축복을 받아가고 있지요.

그 결과, 인수 당시 매출 하위권을 맴돌았던 사업터가 2012년에는 미국 본사 창립 30주년 기념 매출 성장 우수 지점 수상을 했습니다. 가정 소득 수준도 캐나다 통계청 기준 상위 10% 안에 들지요. 이처럼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을 만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삼위 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성령의 불을 받고 일어나 견게 됐어요”

미르나 델모 (필리핀 다바오만민교회)

저는 척추 수술 후유증으로 인해 20여 년 동안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언제부턴가 매달 저의 집 문에는 필리핀 비사야어 ‘만민뉴스’가 꽂혀 있었습니다.

이 신문을 읽으며 은혜를 받다가 다바오만민교회(담임 김은자 목사) 성도가 됐지요. 그런데 2013년 초부터 다리가 굳어지고 힘이 빠져 혼자 걸을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7

월에는 화장실에서 쓰러져 잘 걷지 못하고 침대에서만 생활해야 했지요. 그러던 중, 만민 전(全) 지교회 총지도교사인 이희선 목사님 초청 권능의 손수건 집회(행 19:11~12)가 열린다는 희소식을 들었습니다.

2013년 12월 6일, 드디어 집회가 시작됐고 감사님이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 기도 받은 손수건으로 기도해 주셨습니다. 기도

받은 후 의자에 앉아 있는 제게 선교팀 한 분이 손을 잡고 일어나라고 했지만,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잠시 후 성전 단 앞에 제가 서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어떻게 단 앞까지 걸어갔는지 알 수 없었고 붕붕 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말씀과 찬양, 기도가 이어졌는데 성도들과 함께 온몸으로 춤추며 찬양을 올려드린 시간은 이전에는 체험해 보지 못한 일이었지요.

그날, 저는 성령의 불을 받아 집에 돌아온 뒤에도 하체가 뜨거워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요. 혼자 일어나 걷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침례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진구 동평로 168(부암1동) ☎070-8223-4919~4, 010-9818-9833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 2동 109번지 백성 B/D 7층 ☎051)326-1537, 010-5521-2073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동 444-5 3층 ☎010-8020-7333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동 1가 104-9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37-1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18 온천초등학교 정문 앞 ☎062)513-2455, 010-8888-0727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각화동 167-4 ☎062)266-7001, 010-3637-6443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532-3 ☎052)257-5011, 010-2485-153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549-46 ☎052)291-2253, 010-2505-1537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102-1 ☎031)652-9981, 010-3278-7712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석장리 391 ☎031)835-1717, 010-2634-5478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성정동 722-3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신관동 600-22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장흥동 564-15 ☎041)667-4721, 010-2781-2073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권곡동 535-16 ☎041)546-1537, 010-2672-024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동 16-4 ☎042)841-0091, 010-7195-1099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 1동 173-11 ☎043)293-7077, 010-9271-7017
- 새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956 ☎070-4823-7173, 010-8291-7173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동 700번지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 2동 626-1 ☎055)247-8891~2, 010-5527-207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내이동 1524-14 ☎055)353-9192, 010-9382-2073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리 301-5 ☎055)852-5815, 010-9196-39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부원동 626-18 ☎055)322-7055, 010-6605-2254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내동 456-12 5층 ☎055)289-9522, 010-9331-4405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용남면 화삼리 965-1 ☎055)648-9107, 010-7224-8891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옥포 2동 520-20 (3층)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북 경주시 동천동 835-6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58-14, 4층 ☎054)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3층 ☎054)281-2468, 010-7940-936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 1098-1 ☎054)920-4512, 010-3343-1537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주시 둔덕동 500-5 ☎061)652-8311, 010-7317-2073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해동 765-2번지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천장리 산 153 ☎061)452-7443, 010-3153-1723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동 1616-14 ☎070-4028-2515, 010-2536-2515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 2가 929-1 ☎063)223-9991, 010-4202-1537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 2길 제3동 2층 ☎063)853-0675, 010-3637-0263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나운동 798-7 ☎063)468-7027, 010-7777-702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2-1(순환대로 637) ☎033)261-4217, 010-2759-701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475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163-64 ☎033)637-0271, 010-7733-1327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포남2동 1312-4 3층 ☎033)641-3790, 010-6334-7750
- 제주만민교회 제주시 노형동 2775-1 ☎064)745-0675, 010-2468-2251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126-3 ☎02)995-9951, 010-2276-1014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필동508-1 ☎031)485-9143, 010-5583-4697
- 인천지성전 인천시 남구 주안 5동 23-41 ☎032)863-9857, 010-7127-2073
- 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마전동 698-12 ☎032)569-3835, 010-3430-3312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67-4 ☎010-7103-4097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452-3 ☎031)905-2419, 010-2276-101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735-1 ☎031)552-7397, 010-8163-1537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길 1동 348-5 ☎02)489-3766, 010-7103-4097
- 부평지성전 인천시 부평구 부평 4동 890-3 ☎032)528-3830, 010-6334-7750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109번지 ☎031)202-8480, 010-7127-2073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중리동 465-4 ☎031)635-9103, 010-7103-4097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 3동 165-1 ☎031)840-2906, 010-8163-1537